

하동녹차 세계농업유산 등재…보성 녹차 위기

보성 녹차 산업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 하동녹차가 유엔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녹차 경쟁력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군수 부재로 정책 리더십 공백까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경남 하동군의 지역 전통 차(茶) 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했다.

하동 전통차 농업은 2014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에 이어 국내서는 세 번째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하동군 차산업 육성 총력

군수 부재 정책 공백 속

보성군 대책 마련 부심

차 산업으로는 국내서는 처음이며 세계에서는 일본 1곳, 중국 2곳에 이어 네 번째로, 하동 전통차 농업이 전 세계가 함께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하동군 설명이다.

당장, 하동군은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 녹차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차 산업·문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통차 농업을 계승하는 야생차밭을 체계적인 명사로 보존하고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일원 50만㎡의 천년 차밭을 관광 휴양형 단지로 조성,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보성군은 하동 녹차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따라 녹차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며 떠오르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해 초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녹차 재배 면적 전체에 대해 유기농 재배를 추진키로 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여왔던 만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성지역 안팎에서는 엄중한 시기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할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는 점에서 녹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결정이 미뤄지거나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동 전통차 산업은 올해 10월까지 등재한 세계 17개국 38개 세계중요농업유산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분청박물관 ‘고흥 관광 1번지’로 키운다

고흥군 불거리·즐거거리 확충…내년 예산 5428억 편성

고흥군이 분청박물관을 고흥 관광의 일번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4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5270억원, 특별회계는 158억원으로 올해보다 8.3% 418억원이 증가했다.

고흥군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분청박물관 일원으로 조정래 가족문학관, 설화마을, 청소년 수련관, 한옥마을, 이용덕 학장 조각 전시장, 근·현대 유물전시관, 비석거리를 내년까지 마무리해 관광객들을 위한 불거리와 즐거거리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내년부터 발굴 작업을 본격 개시하여 출토된 지역 유물을 분청박물관에 보관하

고 전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으로써 분청박물관의 국립 승격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마리아느·마가렛 봉사학교의 본격적 운영 계획도 내놓았다. 매년 1만 3000명에 이르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나이팅게일 선사식도 고흥으로 유치하겠다고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고흥군은 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을 고흥까지 오도록 복합휴양단지 조성, 팔영대교 인근 관광인프라 확충, 축섬 정원 개장 등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현장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 시책, 종합적 안전망 확보 차원의 복지사업에도 예산을 편성,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구례군 “2020년까지 인구 3만명 회복”

4개 분야 34개 사업 추진

구례군이 최근 확정, 발표한 ‘2030 인구 정책’은 단시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2020년까지 인구 3만명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태껏 수많은 정책들에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현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구례군은 ▲인구기획(7개) ▲일자리시책(12개) ▲청년대책(6개) ▲출산정책(9개) 등 4개 분야에 430억원을 들여 34개 사업을 추진, 단시간 내 3만명 인구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기획 분야에서는 군이 빈집을 임

차, 리모델링한 뒤 귀농귀촌인에게 재임대하는 ‘빈집 리모델링 팜(farm) 하우스’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

또 ‘인구늘리기 홍보요원’ 50명을 선발, 1명 전임을 성공시킬 경우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귀농귀촌 5가구 이상(또는 10인 이상) 전입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지역개발사업비 5000만원을 우선 배정기로 했다. 군은 관련 예산 2억6000만원을 세웠다. 임산부의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택시비(150명에게 무료쿠폰 10장)도 내주기로 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고3 수험생 ‘길위의 행복 찾기’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최근 수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함께 걸어나는 길 위의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커피농장, 우주발사전망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원예치료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가야문화권 20개 시장·군수 협의회

가야사 바로알기 투어 운영 등 6개 안전 의결

구례·광양·고령 등 가야문화권 시장·군수 협의회가 구례에서 열렸다.

구례군은 지난 29일 구례자연드림파크 회의장에서 영·호남 20개 시·군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사진) 제20차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야사 바로알기 투어 ▲2018 전략 프로젝트 현장교류 ▲가야문화권 정비 및 개발사업 자료 구축 ▲가야문화권 홍보관 운영 ▲2018년 협의회 행사 선정 ▲협의회 회원 추가 영입 등 6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협의회 의장 박용환 고령군수는 “가야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의회 소속 시·군의 관심과 이해를 모을 때”라며 “영호남 통합과 공동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구례군은 가야문화 사업의 하나로 최

군 국비 1억원을 들여 토지연 용두리 고분 발굴조사에 착수했으며, 구례지역 가야문화 기초학술 조사도 진행 중이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최근 6차 산업화 성공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구례는 풍부한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가야유적지 조사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유적지 복원, 콘텐트 개발 등 지역문화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 발족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는 영·호남 20개 시·군(여수·광양·순천·구례·남원·장수·거창·고령·김해·고성·달성·산청·상주·성주·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함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례군은 지난 2015년 6월에 가입했고, 곡성과 임실군은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곡성 관광택시 이용객 1000명 돌파

출발 1년을 맞은 곡성 관광택시 이용객이 1000명을 돌파했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9일 1000번째 고객인 경기도 평택 시민에게 꽃다발과 심정상품권을 전달했다. <사진> 지난해 1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출범 1년째를 맞이한 곡성 관광택시는 9명 택시기사의 자긍심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 곡성 명물이 됐다.

곡성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살펴보고 자신만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힐링 여행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곡성군은 특히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곳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관광객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여행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 ‘섬진강 가차마을’ 등 대표 관광지 와 ‘섬진강 침실습지’, ‘대황강 출렁다리’



등 곡성의 숨겨진 명소를 소개하고 단풍이 물든 태안사, 관음사 사찰길 산책 등 계절별 관광지를 안내하는가 하면, ‘잡게 수제비’, ‘석곡 흑돼지’ 등 이색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펼친 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G.O. 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는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전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피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천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